

다산포럼

식민지 근대화론은 타당한가? (2)

황상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학사

일제강점기 조선사회의 가장 큰 보건문제는 전염병이었다. 이 기간, 즉 20세기 전반기 동안 전염병은 조선민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의 문제이기도 했고, 나아가 전 세계적인 문제였다.

전염병 환자와 사망자가 오늘날에 비해 매우 많았거나 당시 그나마 관리가 가능했던 질병이 결핵, 콜라라, 장티푸스, 이질, 두창, 발진티푸스, 디프리어이 등 전염병들 이었기 때문이었다. 영국의 관련 자료를 보면 1890년부터 1940년까지 영국인 수명 증가의 40% 낭자이 전염병 관리 덕분이었다.

이 즈음 전염병은 어떻게 관리되었을까?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이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 측 민간인들에게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1944년이고, 연합국과 전쟁을 벌인 일본과 독일 등에 보급된 것은 2차 대전 종

전 뒤의 일이다. 최초의 효과적인 결핵치료약인 스트렙토마이신이 세상에 선을 보인 것은 1946년이었다. 1930년대부터 설파·약이 많이 쓰였지만 전염병 치료에 큰 효과를 보였던 것은 아니었다.

디프리어이 등 몇 가지 전염병에 대한 예방·백신들은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전염병의 일부일 뿐이다. 그런데도 이 기간 동안 선진국에서 전염병이 상당 정도 퇴치된 데에는 의학의 힘보다는 영양상태의 향상, 주거 및 상하수도 시설의 개선이라는 의학 외적인 요인이 더 크게 작용했다.

이제 시선은 일본과 조선으로 돌려보자. 1910년부터 1940년대 초까지 일본의 법정전염병 환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대략 200명 수준을 유지했다. 그럼 조선은? 지난번에 언급했듯이 조선총독부는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과 조선인에 대해서 따로따로 보건통계를 작성했다.

조선 거주 일본인 환자 수는 이 기간 인구 10만 명당 800명 내지 1100명 수준에서 오르락내리락했다. 즉 조선 거주 일본인은 본토의 일본인보다 전염병 이환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이왕듯 총독부는 조선에 사는 일본인의 전염병 관리도 제대로 못했다.

조선인들의 사정은 어땠을까?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조선인 전염병

환자 수는 조선 거주 일본인의 몇십 분의 1에 지나지 않았으며, 일본 본토에 비해서도 훨씬 적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실제로 조선인 환자가 적었던 것일까?

총독부는 보건의료 분야 중 법정전염병 예방과 관리에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으며 또 그만큼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일본인 환자 수는 본토의 4배 이상 되는 수준에서 줄어들지 않았고, 조선인 환자는 1918~19년의 인플루엔자와 1919~20년의 콜라라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아래에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 환자 규모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책을 기대한다는 것은 난센스일 터이다.

일제도 조선인의 전염병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조선인들의 근대적 위생에 대한 무지, 당국에 대한 비협조, 의료인(특히 의사, 지금의 한의사에 해당)들의 무능과 태만을 꼽았다. 하지만 총독부가 조선을 30년 이상 통치한 주체인 바, 그런 이유들은 한갓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대만도 비슷했다. 대만인 법정전염병 환자는 거의 파악되지 않았으며,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들도 조선 거주 일본인보다는 나았지만 일본 본토보다 전염병에 대한 경계심은 대체로 높았다.

조선인들의 사정은 어땠을까?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당 조선인 전염병

는 일본인들의 전염병 이환율이 짧은 기간 동안만 본토보다 높았다면 현지 풍토에 적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이것은 전 기간에 걸친 현상이었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 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강점 후기로 가면 조금 나아졌지만 조선과 대만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은 본토의 일본인들보다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많았다. 일본 본토의 법정전염병 사망자 수는 이 기간 내내 인구 10만 명당 50명 수준으로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

일본의 군사력은 구미 열강과 맞설 정도로 강화되었지만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담보 상대로 선진국들과 점점 더 차이가 났다. 조선 거주 일본인의 법정전염병 사망은 초기에는 인구 10만 명당 150명 내지 250명, 후기에는 100명 내지 150명 수준으로 본토에 비해 훨씬 높았다. 그리고 법정전염병으로 인한 조선인과 대만인 사망자 수는 거의 파악되지 않았다.

요컨대 일제의 선전과는 달리 조선인, 그리고 대만인들은 당시 가장 큰 보건 문제였던 전염병의 예방과 관리에서 완전히 소외되어 있었다. 일제 강점기 동안 근대적 의료가 이전 시기보다 많이 보급되었으므로 전염병 관리가 잘 되었으리라는 막연한 통념은 근거 없는 것이다.

NGO 칼럼

빛고을 광주, 그리고 태극기



장영주

㈔국학원 원장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 세계 한상대회가 비즈니스 상담까지 합치면 5억 달러에 달하는 투자·수출협약으로 사상 최대의 성과를 냈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10월 수출액이 원고 현상에도 505억 1100만 달러로 신기록을 세우면서 무역수지 21개월 연속 흑자를 이뤘다. 이러한 경제적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보이지 않은 세계적인 환경에 빠져들었다.

연구에 의하면 '메이드인 코리아'가 '메인드 인 제팬'이나, '메이드인 아메리카'의 평가보다 9.3%, 약 58조 원의 더 낮은 평가를 받는다고 한다. 이런 비정상적인 이유는 바로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주시지 않아 애기되는 순례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납

들이 모른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의 상징으로 대한민국 국기(國旗)인 '태극기(太極旗)'부터 바로 알아야하고 교육해야 한다.

국가에는 한 나라의 역사, 민족성, 소망이 담겨 있기에 가히 '나라의 얼굴'이라 할 수 있다. 지구상의 200여 개의 국기는 하나같이 해, 달, 별처럼 보이는 시작적 존재이거나 또는 평등, 자유, 독립 등 상대적 가치의 상징으로 일관되어 있다. 예컨대 캐나다의 국기는 중앙에는 나라나무인 '붉은 단풍나무'였을 때, 양쪽의 붉은색은 대서양, 태평양을 뜻하여 그들의 넓은 땅과 자연을 상징하고 있다. 일본은 붉은 태양의 시각적인 모양이며 대국으로 발돋움 하는 중국의 국기 또한 다섯 개의 별이 모인 '오성기(五星旗)'로 정치적 이념 담성을 위한 표상이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기는 초록색의 바탕에 칼과 함께 "알라 외에는 신(神)이 없고, 무함마드는 예언자이다"라는 '코란' 1절이 써어 있다.

사막의 땅에서 초록은 생명의 색이고, '코란'이나 칼이란 선택하려는 뜻이 반영된 것처럼 느껴진다.

이에 비해 대한민국 태극기 중앙의 둑근 원은 하늘의 양기와 땅의 음기가 조화를 이루어 '하늘', '땅', '생명'이 운전히 '하나'에 뜻이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수기는 올라가고 화기는 내려오는 생명의 우주질서

인 '수승화강(水承火降)'의 틀림없는 상징이다. '수승화강'이 단절되며 모든 생명은 소멸하니,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는 천부경(天符經)의 '민왕만래(萬往萬來)'를 새겨 넣은 시각화된 진리의 디자인이다. 4제 역시 우주의 변화의 골격으로 천도(天道), 지리(地理), 음기(陰氣), 양기(陽氣)가 '순환하는 하나(一)'임을 표현한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도리도리 짹짜꿍(道理道理 作作宮)"을 각인시켜주는 것은 '너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깃든 거룩한 궁전'임을 알려준다.

"건지근지 짹짜꿍(乾坤知作作宮)"은 "아가야, 하늘(乾)을 알고, 땅(坤)을 알면 내가 바로 천지인이 하나로 어우러진 궁전이란다"라는 가장 큰 진리를 걸기 전부터 알려주는 '문화'이다. 태극기의 깃털에 대를 이어 풀려나오는 위대한 천재교육이다.

분래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중국이 아닌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우주를 터득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신라 제31대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대왕의 뜻을 이어 서기 682년에 준공한 '감은사(感應寺)'의 돌계단에 이미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다. 이로부터 388년 뒤인 1070년, 지금 중국 땅인 송나라 신종 때의 주렴계(周濂溪)가 처음으로 태극도설을 고론했다.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신부인 25시의 작가 '게오르크'(1918~1992)는 깊고 예리한

시각으로 우리의 태극기를 보았다.

"한국의 국기는 유일한 것으로 어느 나라 국기와도 닮지 않았다. 거기에는 세계 모든 철학이 요약돼 있다. 태극기는 멋지다. 거기에는 우주의 대질서, 인간의 조건과 생과 사의 모든 운명이 그려져 있다."

미국의 유명한 천문학자인 칼 세이건(1934~1996)은 "별이 그려져 있는 미국의 국기나 태양을 상징 삼은 일본이나 대만의 국기, 그리고 반달이 그려져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그것보다 한국의 태극기는 우주 그 자체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매우 특징적이며 나아가 태극기의 그런 상징성과 특징이야말로 세계주의적인 보편성을 지니는 것이다"고 말했다.

태극기를 통해 '보이는 세상 너머의 보이지 않는 우주의 심오한 질서'를 이토록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을 우리 민족의 뛰어난 뇌의 성능과 지혜를 증명한다. 우리말의 '鄙'은 유·무형의 상품을 거래할 때 더 얹어주는 우군한 인정이 오가는 예상치 않은 이익을 말한다. 태극기에 서린 우주의 질서·힘과 아름다운 우리의 문화를 국민과 세계에 바로 알릴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고 오히려 '코리아 래'라는 새로운 한류가 생길 것이다. 우주 생명의 빛을 담김없이 입력한 우리 태극기의 광휘를 전 세계에 펼칠 힘과 희망을 내려오는 광주'가 되길 간곡하게 기원한다.

본래 태극도설(太極圖說)은 중국이 아닌 우리 민족의 관점으로 우주를 터득하는 '절대적 가치'이다. 신라 제31대 신문왕의 아버지 문무대왕의 뜻을 이어 서기 682년에 준공한 '감은사(感應寺)'의 돌계단에 이미 태극도형이 새겨져 있다. 이로부터 388년 뒤인 1070년, 지금 중국 땅인 송나라 신종 때의 주렴계(周濂溪)가 처음으로 태극도설을 고론했다.

세계적인 소설가이자 신부인 25시의 작가 '게오르크'(1918~1992)는 깊고 예리한

기고

자주적 통일, 후삼국 통합에서 배우자

이진영
나평건설 부회장

내고향 나주(공산)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구전이 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로 후삼국 패권을 잡기 위해 왕건과 견훤의 공방전이 복사초리에서 벌어졌다는 것이다.

공직을 퇴직하고 나서 고향의 대선배이자 통계학의 권위자였던 고 강의수 선생이 생전에 수집했던 자료와 체록 자료를 모아 그 의미를 찾아 나섰다. 그 결과 공산에 성주산 정상에 후백제의 정찰소가 설치되었고, 그 아래 후동굴에는 견훤의 부대가 응거하였는데 그 허중이 계획자로 선택된 왕자들 가운데서는 나주 밭간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비의 땅 공산은 이야기가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어 그 위상이 높아졌으며 지역민의 자긍심도 커졌다.

금화 발간된 본 책자에서도 전공학자들이 밝히고 있듯이 후조왕건의 뒤를 이어 즉위한 인물은 나주 오씨와 혼인하여 낳은 혼종이었다.

25명에 달하는 후조왕건의 왕자들 가운데서는 나주 밭간이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신비의 땅 공산은 이야기가 있는 지역으로 탈바꿈되었다고 보았다.

그래서 견훤은 나주 남쪽의 10여 개의 주(州縣)에 대한 대대적인 공격을 하였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나주지방을 비롯한 서남해 일대의 지방세력들이 일찍부터 협동 활동

을 통해 세력을 쓸어 토착세력들로서 견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것에 불만을 품은데다가, 높은 식견 사려깊은 왕건의 신중한 몸가짐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같은 해상세력에 친근감 등을 가졌던 것이다.

자신에서 협력했던 나주지방 세력들이 이어 한 태도가 새롭게 등장한 왕건의 입장에서는 좋은 기회를 맞게 된 셈이었다. 이 기회를 이용 903년에 있었던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성(나주)을 빼앗고 인근 10주(州縣)의 공략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주는 정권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영산강을 끼고 서남해연안을 비롯하여 그 하류에 산재한 다도해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해외무역의 요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내륙의 중부 일대 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이 기회를 이용 903년에 있었던 왕건은 수군을 거느리고 서해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금성(나주)을 빼앗고 인근 10주(州縣)의 공략 지배권을 확보하게 되었다. 나주는 정권을 지탱하는데 중요한 곡창지대일 뿐 아니라 영산강을 끼고 서남해연안을 비롯하여 그 하류에 산재한 다도해를 중심으로 중국과의 해외무역의 요충이자 군사적 요충지였기에 내륙의 중부 일대 보다 전략적으로 중요했다.

또한 935년 3월에는 견훤의 장남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 견훤왕을 금산에 유폐시켰는데, 두 달 뒤인 6월에 견훤이 탈출해 나주로 피신하자 나주지방 세력들이 고려정부에 견훤의 귀부를 알리고 해로를 통해 개경으로 들어가게 해 왕건의 편으로 만들었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社說

수능 난이도 실패, 대입 지도 대혼란이라니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다는 평을 듣고 시행된 수준별 시험으로 인해 A형과 B형 응시자들의 성적 수준과 분포를 짐작하기 어려워 일선학교 입시 지도에 대혼란이 예고되고 있다. 게다가 지원대학별로 가산점 부여 정도가 다르고, 전형 요소별 반영방법도 천차만별이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광주지역 교사들은 국어의 경우 A/B 형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웠고, 영어는 A/B형의 난이도가 뚜렷이 구별돼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고전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대학 입시에서는 상위권이 몰린 영어 B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하위권 31.6%가 쉽게 출제된 A형으로 옮기면서 상대적으로 B형 수험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자칫 영어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수시 1차에서 대거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기차 사기극 수사 한점 의혹없게 밝혀야

영광 대마산단 내 입주한 전기 자동차회사로부터 전기자동차 핵심 부품인 직구동 모터 제조·생산권과 아시아 독점 판매권을 받지 못했으면서도 확보한 것처럼 투자를 속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기극이 전문학적 규모로 커진 데에는 영광군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투자유치에만 급급, 장밋빛 청사진을 부각시키는데 앞장섰기 때문이다.

영광경찰은 지난 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에코네스 대표와 자회사인 에코네스 EDD 부회장 등 5명을 구속하고, 영업 사원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에코네스 대표는 최근 검찰로 송치돼 광주지검 특수부가 보강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경찰이 영광군의 관련 여부를 캐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행정상 과실은 물론 밝혀지지 않은 수사는 물론 커넥션이 있는지 강도 높은 수사를 해야 한다. 이 사건에 피해자만 수천 명에 달하는 만큼 사기극의 진실을 명명백하게 밝혀내길 바란다.

無等鼓

달력에는 표기되지 않지만 '데이 마케팅'(Day marketing)에 따라 만들어진 기념일이 다달이 넘쳐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유행한 '데이 마케팅'은 유동업계나 단체 등에서 특정한 날(day)에 특정 제품을 소비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품과 유사한 발음이나 형태를 연관시켜 특정날짜를 잡았다.

올해 3·1절, 제현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5대 국경일을 포함한 평일 휴일은 12일에 불과하지만 유